

세무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2009년 12월 pp.225~247

한국세무학회

회계투명성 제고*

- IFRS와 XBRL의 도입 -

김이배**

<요 약>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을 함께 전면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더 크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이라는 현실적 배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회계투명성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 도입의 기대 효과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XBRL의 탄생과 적용, 도입 효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제회계기준(IFRS), XBRL의 도입이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회계신인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국가의 회계투명성은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국가의 회계투명성은 크게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중심의 회계를 지향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새로운 회계환경에 직면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는 아직 확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즉, 기업 입장의 좁은 의미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단기적으로는 보장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면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XBRL의 도입은 표준화를 통하여 호환성을 향상시켜주고, 정보제공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며, 표준화된 정보의 유통으로 회계투명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증연구는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 본격적인 도입이 아니라 XBRL을 자발적으로 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의 도입에 정책적 타당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2009년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이 11개에 불과하므로 실증분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점은 2011년에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였을 경우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회계투명성, 국제회계기준(IFRS), XBRL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08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계학전공 전임강사, kyibae@duksung.ac.kr, 02-901-8276

I. 서 론

회계투명성은 기업투명성, 경영투명성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은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법률, 회계기준, 지배 구조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회계투명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회계투명성의 낙후를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보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되어 국내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방해하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기업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사외 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현재의 한국회계기준원)을 발족하고, 여기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작업을 하였다. 더불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영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감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였다(백원선·조중석 2007).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였다.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이 2009년 희망기업에 한하여 허용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국제적 정합성이 높아지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에 XBRL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모든 업무보고서에 XBRL이 적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을 함께 전면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현실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회계투명성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 과정,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또한 XBRL의 탄생과 적용, 도입 효과를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제회계기준(IFRS), XBRL의 도입이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회계투명성은 합리적인 회계기준과 실무 적용 시스템, 회계정보의 양과 품질, 기업의 지배구조 등 회계처리와 재무보고가 이루어지는 회계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의 동시 적용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경영투명성의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의 도입을 통합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의 도입에 타당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서론, II 장에서는 회계투명성의 정의, 측정, 국제회계

기준(IFRS)의 도입과 도입 효과, XBRL의 개념과 특징, 도입 효과를 알아 본다. III장에서는 회계투명성,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XBRL의 도입과 회계투명성과의 관련성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회계투명성, 국제회계기준(IFRS), XBRL

1. 회계투명성

최근에 들어와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윤리경영이 기업의 주요한 생존 전략의 하나로 실무 및 학계에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리경영은 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의 척도라 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의 성과 및 회계투명성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문현주 2007).

회계투명성, 경영투명성은 최근 들어 매우 널리 통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된 정의는 없다고 볼 수 있다(백원선·조중석 2007). 또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막연하다.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계 및 실무 모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이 무엇이며, 회계투명성을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확고한 연구나 일관된 이론이 없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도 일천한 현실이다(이장형 2004). 이러한 점들은 회계투명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학 연구에 더하여 윤리학, 경영전략, 심리학 등의 연구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황호찬 2008).

회계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PwC는 회계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인 회계의 불투명성을 ‘분명하고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회계 기준이나 회계처리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IMF의 투명성과 수탁책임에 대한 실무 작업반의 정의를 살펴보면,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관된 개념인 회계투명성과 수탁책임완수가 모두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투자자와 채권자는 투명하게 공시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수탁결과를 판정할 수 있고, 경영자는 수탁책임완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투명성이란 현재의 상태, 의사결정 및 행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¹⁾ 즉, 이때의 투명성은 공시측면을 강조한 것으로²⁾,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는 적시성, 완전공시, 일관성, 위험관리, 감사와 통제의 절차라는 속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송인만·이창우·이갑재 2007).

1) “Transparency refers to a process by which information about existing conditions, decisions and actions is made accessible, visible and understandable.”

2) 공시측면의 투명성을 강조한 공시정보의 품질지수는 CIFAR(the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ial Analysis and Research)와 AIMR(the 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 지수가 있다.

백원선·조중석(2007)은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회계투명성을 “기업외부자로 하여금 기업정보를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³⁾”라고 정의하였다. 송인만·이창우·이갑재(2007)는 회계투명성이란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고 하였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회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기준이 실무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지를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시수단의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회계투명성은 정보품질, 제도, 지배구조, 공시시스템 등 자본시장환경과 광범위하게 관계된 개념임을 보였다. 황호찬(2008)은 회계분야의 기존 정의를 반영하여 회계투명성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공시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회계투명성은 접근성, 이해가능성, 적시성, 완결성 등을 포함하여, 어떻게, 어느 분량만큼의 회계정보를 공시(disclosure)하는가에 좌우된다.

송인만·이창우·이갑재(2007)는 회계투명성을 크게 국가 회계투명성과 기업 회계투명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회계투명성을 크게 회계정보, 제도/기업지배구조, 윤리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국가 회계투명성은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사제도, 그리고 회계윤리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업 회계투명성 역시 회계정보,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윤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평가하였다.⁴⁾

2. 국제회계기준(IFRS)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 이후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제화된 회계기준을 제정, 개정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국회계연구원⁵⁾ 설립 이후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IFRS)⁶⁾을

3) “Accounting transparency i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corporate information is promptly and sufficiently available to external users.”

4) 송인만·이창우·이갑재(2007)는 회계투명성지수 개발을 위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모형 I은 회계정보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국가수준에서는 회계정보의 공시투명성과 접근용이성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며, 기업수준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가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모형 II는 제도 및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국가수준에서는 회계·감사기준 및 감독기준이 얼마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며, 기업수준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성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 III에서는 회계관련제도를 준수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윤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국가수준에서는 회계윤리와 관련된 제도정비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수준에서는 경영자 및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한 윤리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5) 현재의 한국회계기준원

6) 국제회계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2001년도에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가 전세계 다국적기업들에게 국제회계기준(IFRS)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영향력이 커졌다.

준거하여 제정하여 왔으나, 약간의 차이로⁷⁾ 인하여 국제 사회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미사용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는 국제자본시장에서 한국기업 회계에 대해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회계투명성의 낙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회계투명성 부족 및 그로 인한 국제적 신인도 하락을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IFRS)의 차이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국제신인도 향상을 꾀하는 정책보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수용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⁸⁾(김문철·안영균·정혜영 2006).

회계기준이 국제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아무래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의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다. 기업의 활동영역이 국제화 내지 초국적화되면서 세계 각 국에서 투자활동이 증대되었고 증권시장은 IT 기술의 발달로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하에서 기업회계는 기업의 국제적인 사업기회의 확장과 국경을 넘어서 이익창출을 바라는 지분 및 채권투자자들의 기대에 맞게 단일화된 하나의 규범으로서의 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로 하였다. 즉, 투자자, 채권자, 기업, 정부, 소비자 모두에게 국제화된 기업환경 아래서 꼭 필요한 공통의 기업언어로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한국회계연구원 2003).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15일에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조기 적용을 원하는 상장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할 수 있으며, 모든 상장 법인들은 2011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비상장기업은 향후 제정될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EU(European Union)는 2005년 1월 1일 이후 EU내 모든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2001년 말 엔론, 2002년 초 월드컴의 회계분식 사고 이후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을 2002년 7월에 제정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자세로 변화하였고(김정국·문점식·서정우, 2004),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합치 작업(convergence process)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호주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였으며, 2007년 5월에 호주만의 특수한 공시 요구사항을 삭제하여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에 보다 근접하게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 캐나다는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들⁹⁾에 대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7) 국내의 많은 회계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IFRS)은 90%정도 유사하다고 주장한다(김문철·안영균·정혜영 2006).

8) 예를 들어, 회계선진국인 호주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자국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또는 자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국제신인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김문철·안영균·정혜영 2006).

9) 상장기업, 또는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탁자 자격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은행·보험·증권 등)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일본은 2005년 3월에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간에 회계기준의 합치에 합의하였으며, 2007년 9월에 일본 금융청(FSA)은 자국기업에 대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선택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금융감독원 2008).

국제회계기준(IFRS)의 범세계적 수용은 국제재무보고와 관련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일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과 국가별 회계기준의 합치(converge)를 추구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각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관은 회계처리의 사안별 각론에는 지속적인 이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국제화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의 국제적 표준화라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다(오준환·김호중·김성남 2007).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국내법과 상치되는 문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 등이 중요하게 대두된다(김문철·안영균·정혜영 2006).

100여개에 달하는 국가가 이미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였거나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로만 단정할 성격은 아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화된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박홍조·정태범 2008).

3. XBRL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확장성 기업보고언어)은 기업정보의 국제적 통용 및 신속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1999년 XBRL International이 제정한 국제 표준 전산언어로, 전자인식기호(일종의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계정과목의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하는 기업재무정보의 국제 표준 보고방식이다.¹⁰⁾

XBRL은 차세대 인터넷 언어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복잡한 기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 교환,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보고용 국제 표준화 언어이다. 기업정보의 국제유통을 위해 국가별 제도와 기업별 관습에 따라 서로 다른 양식으로 작성된 기업정보를 이미지로 인식해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pdf)에서 벗어나 데이터로 정보를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체계이다.¹¹⁾ 즉, XBRL은 XML을 기업 보고 영역에 응용한 표준이다(이정이·김이배·김철환 2009).

금융감독원은 2005년 10월에 미국 등 다수의 국가가 회계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XBRL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XBRL을 도입하기로 하고,¹²⁾ 2007년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5) 참조

11) XBRL 한국본부 홈페이지 참조

12) XBRL은 기존의 재무정보의 작성, 유통, 활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재무제표의 전자문서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DART시스템을 비롯한 기존 전자문서가 재무정보를

2월에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시스템에 XBRL의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재무분석시스템을 2010년 이후부터 본격 구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7년 7월에는 주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은 정기보고서(사업/분기/반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XBRL로 제출하기로 하고, 2007년 10월 1일부터 XBRL 공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XBRL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³⁾

첫째, 호환성이다. XBRL은 정보의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된 정보의 호환과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정보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여 XBRL방식으로 저장하여 놓으면 서로 다른 형태의 기업보고서, 즉 감독기관에 제출할 재무제표, 금융기관에 제출할 재무보고서, 공시에 필요한 자료 등을 즉시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통합이 가능하며, 통합된 정보는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기업외부에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경제성이다. XBRL의 사용은 정보의 교환비용을 절감시킨다.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탐색하고 재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기계적인 수작업의 양은 감소시키는 반면, 보다 생산적인 분석작업에 시간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투명성이다. XBRL의 사용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준화된 회계정보의 유통으로 이전보다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정보욕구는 시장에서 투명한 회계정보와 투명한 경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기업내부에서는 예산, 원가관리, 성과측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의 적시제공을 요구하게 되므로 구성원간의 수직적 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금융감독원이 XBRL을 도입하면서 발표한 XBRL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다.¹⁴⁾

첫째, 표준화를 통하여 호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순히 전산적인 표준화에 그치지 않고 재무정보의 내용도 표준화하여 재무자료의 작성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는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한다. 이는 재무제표 정보의 표준화¹⁵⁾와 재무제표 제공 정보의 확대,¹⁶⁾ 재무제표 작성 전산언어의 표준화¹⁷⁾를 가져온다.

자동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하지 못하여 기업 등은 동일 재무제표를 제출 기관별로 다른 형식*의 전자문서로 제작성함으로써 많은 오류의 위험이 있고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등 업무상 번잡이 불가피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5).

* DART 제출(SGML), 금융회사 대출서식 작성(훈글, 워드, 엑셀 등)

13) XBRL 한국본부 홈페이지 참조

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5) 참조

15) 계정과목 명칭, 계산식, 회계기준 근거, 계정과목 표시순서, 상하위 관계 등 재무제표 내용 전반을 회계기준에 맞추어 표준화하며, 이를 택사노미(Taxonomy)라 함.

16) 종전 전산언어로 작성된 재무제표에는 계정과목 및 금액 정보만이 포함되었으나 XBRL에는 상기 정보외에도 계산식, 회계기준 근거 등 재무제표 활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가 재무제표와 함께 유통됨

17) 자국내 및 국가간 재무정보의 원활한 교환(유통)을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 전산언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함.

둘째, 태그 데이터(tagged data)를 통한 재무정보의 활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반 재무정보에 Tag를 부착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재무정보의 활용성이 제고된다.

셋째, 경제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동일한 재무자료를 반복해서 작성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재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표준화된 회계정보의 유통으로 생산적인 작업에 시간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광범위한 이용자가 재무정보에 접근하여 분석이 가능해진다.

XBRL은 1차적으로 재무회계보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XBRL은 기업에 관한 정보, 특히 재무적 정보의 실시간 보고를 가능하게 한다. XBRL이 가져올 변화의 2차적인 영향은 비재무적 정보의 보고, 내부통제, 감사, 회계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도상호 2004).

XBRL 도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기업은 XBRL에 의하여 산출된 재무제표를 다양한 외부 보고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고의 효율성(one source multi use)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이 경감된다. 재무제표 작성시 자동 계산검증으로 작성시간이 단축되고, 공시서류 제출시 기재출된 XBRL재무제표를 참조토록 하여 사업보고서나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동일 재무제표를 중복하여 제출하는 것이 방지된다.

둘째, XBRL 활용, 분석 툴(tool)을 채택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태그 데이터(tagged data)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입수 즉시 저렴하고 신뢰성 있게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 분석 및 연구가 확대되며 이를 통하여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며, 신속한 재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XBRL 재무제표에는 재무수치를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전자인식기호가 붙어 있어서 공시재무제표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시간이 종전 2개월에서 접수 당일로 단축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재무분석 및 심사 속도가 빨라져 공시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XBRL 본가동을 계기로 XBRL의 효용성이 널리 인식되어 국가적인 재무정보 인프라로 발전 가능하다.

셋째, DART상 공시 재무제표의 활용방식을 종전 ‘열람’에서 ‘가공’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도 심사시간이 단축되어, 분석강화 등 감독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 경영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도 강화된다. 감독당국 뿐 아니라 공시이용자도 XBRL 재무정보를 접수 즉시 엑셀 등 다양한 도구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다.

넷째, 택사노미에 정의된 국·영문 계정과목 변환명세를 활용하여 국문 계정과목을 영어로 쉽게 변환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한 외국기관, 투자자 등의 용이한 접근으로 대외 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XBRL의 금액 검증기능을 통과한 정확한 재무제표가 유통되므로 종전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별도 검증하는데 소요된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며 재무정보,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제고될 수 있다. 과거엔 기업이 재무제표의 기재오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공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

1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5, 2007) 참조

으나, XBRL은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금액을 자동검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오류가 사전 차단되어 기업회계의 신뢰성이 제고된다.

XBRL 도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XBRL 도입으로 정보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business reporting data)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XBRL은 보다 광범위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mobile technology) 등 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의 접근과 유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시장의 일반투자자들은 과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기업의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를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증권분석가 등 특수한 지위에 있던 정보이용자의 정보우위를 그만큼 감소시켜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 현상(information asymmetry)을 완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투자자와 전통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정보이용자의 격차가 줄어들고 정보의 민주화현상이 촉진된다(도상호 2004).

III. 선행연구 검토

1. 회계투명성

가. 회계투명성 측정

이장형(2004)은 회계투명성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재무비율, 감사의견, 지배구조지수, 기업규모, 기업공시의 5가지 변수를 이용한 회계투명성 점수 종합모형인 회계투명성 측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100점 만점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지수화하여 투자자 및 채권자 같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면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일조를 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장형(2004)의 연구모형은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이 된 부분이 아니므로 한계를 가지며,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다른 정성적인 변수가 추가되면 다른 모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현주(2007)는 회계투명성의 측정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재량발생액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윤리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이 약함을 볼 수 있었으며, 윤리경영 도입효과를 도입 전과 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도입 전에 비해 도입 이후의 재량발생액이 더 작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을 활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이익조정행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윤리경영 도입이 회계투명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현주(2007)의 연구결과는 국내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비롯한 경영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윤리경영 도입의 필요성과 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으로 윤리경영을 강화시켜야 할 것을 시사한다.

황호찬(2008)은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회계불투명성을 수반하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회계투명성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의 공시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회계투명성을 크게 윤리문제와 공

시문제로 나누어 접근하여 윤리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자의 개인적 요인(인지적 도덕 발달)과 회계투명성 이슈의 상황적 요인(도덕적 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공시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직적 요인(정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관한 의사결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개인적인 요인(인지적 도덕 발달 정도), 회계투명성이라는 상황적 요인(결과의 중요성, 근접성, 사회적 합의), 그리고 특정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조직적 특성(획득, 유지, 보수, 산업특성 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송인만·이창우·이갑재(2007)는 회계투명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크게 국가의 회계투명성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국가투명성은 제도, 법, 경제적 측면의 투명성을 측정하고 있으나 국가투명성의 측정은 경성적 자료에만 의존하기에는 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기업투명성은 주로 공시와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공시사항 및 재무비율분석을 통해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공시제도 및 기업지배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기업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으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문화 및 사회적 책임까지 아울러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회계투명성 측정지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송인만·이창우·이갑재(2007)의 연구는 회계투명성을 국가의 회계투명성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구분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국가 전체적인 회계신인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회계시스템의 국제화, 선진화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국가의 회계투명성은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국가의 회계투명성은 크게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중심의 회계를 지향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새로운 회계환경에 직면하여 인식의 전환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는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기업 입장의 좁은 의미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단기적으로는 보장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면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김광운·박해영(2002)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외부감사, 내부통제, 내부감사, 기업 회계기준의 국제화, 정부의 감리 강화의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중요시하는 방안은 외부감사와 내부통제, 내부감사의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감리강화와 회계기준의 국제화가 투명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김광운·박해영(2002)의 연구결과는 기업 스스로의 분식회계근절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투명경영에 대한 기업환경의 정착이 어떠한 규제나 정부의 감리강화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표 1〉 회계투명성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국가투명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업투명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PwC (2001, 2004)	부패관행지수/법률적 불투명성/경제적·정 책적 불투명성/회계· 기업지배구조 불투명 성/규제의 불투명성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장지인·배길수 ·전영순(2002)	PwC의 회계·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S & P (2001)			소유구조/재무투명성 및 정보공시/경영진과 경영절차	사업보고서 분석
CLSA (2003)			통제/투명성/독립성/ 임무충실성/경영책임성/ 공정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설문조사
KDI (2003)	공시/감사/회계제도	존재유무에 대한 평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회계 및 감사시스템/공시/ 회계정보의 내용	기업지배구조지 수사용 및 비율분석
LG연구소 (2002)			회계투명성	재무비율분석
Beneish (1999)			이익조작기업의 예측모형 : 8개의 이익조작지수	회계정보를 이용한 지수분석
Bushman and Smith (2003)			기업공시/정보배포/사적정 보획득 및 전달	CIFAR 및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사용
고종권·윤성수 (2006)			감리지적기업의 예측모형 : M-Score 및 비율분석	회계정보를 이용한 지수분석
DJSI			경제, 환경, 사회부분의 평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설문조사, 공개된 기업정보,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원 : 송인만·이창우·이갑재(2007)

박종성·이은철(2003)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 의해 추진된 다양한 회계제도 개선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¹⁹⁾ 분석결과, 회계제도 개선이후의 기간에서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제도 개선으로 인해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의 이익조정 행위가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계제도 개선이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회계변수와 주가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회계제도 개선 이후의 기간에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회계변수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이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명곤·이화득(2004)은 분식회계를 근절시킴으로써 투명한 회계환경을 조성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실무자의 전문가적 의식결여를 해결하고,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채용을 주권상장기업과 협회등록법인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단계 조치로 사업보고서에 회계부서의 공인회계사 등 재무전문가 확보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회계정보이용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정보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보체계인 XBRL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XBRL을 통해 기업은 재무제표를 빠르고 손쉽게 작성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용이한 접근 및 편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및 투자효율성 또한 제고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XBRL의 효과는 실시간 회계 혹은 현장회계의 구현을 통한 회계투명성 향상에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재원·최현돌(2005)은 회계투명성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수준 및 소유구조가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2년과 2003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기업지배구조평가 설문에 기초하여 분석한 실증결과,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투명성, 즉 보수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의 각 부문(주주권 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과실배분)별로는 공시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보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문은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과 같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결과를 외부이해관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공시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성과 등이 빈번하게, 오류 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전달될 때 경영투명성이 확보되고, 또한 회계정보의 투명성도 확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계투명성은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으로 낙인찍히면 그 기업의 모든 재무정보를 불신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투자자들이다.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기업이 많은 국가일수록 그 국가 통화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해당기업 역시 기업가치가 하락

19) 회계정보의 투명성 향상 여부는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회계변수와 주가와의 관련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환란이라는 아픈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실험적인 것이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회계실패에 대한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망된다(이명곤·이화득 2004).

2. 국제회계기준(IFRS)

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관련 연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를 주도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에도 영향력이 큰 EU 각 국은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였다. EU 각 국의 감독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적용에 관한 평가를 해 오며 국제회계기준(IFRS)의 조기 정착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EU 각 국의 감독당국은 자국의 고유한 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는 작업이나, 미국 시장에서의 국제회계기준(IFRS) 사용 인정, 재무정보의 질 및 비교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유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수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32.4%에 해당하는 144명이 국제적 대세라는 점을 들었고,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09명(24.5%)이었다. 그밖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회계투명성 제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의 경감 항목은 각각 50명 - 70명 내외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수용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논리적으로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문철·안영균·정혜영 2006).

오준환·김호중·김성남(2007)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완전수용은 회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의 관점에서 효율성 및 국제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성과 유용성의 관점에서 국가별 산업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시장의 평가는 다양하고, 본격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국가는 EU, 호주 등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EC의 요청에 따라 영국회계사회(ICAEW)²¹⁾는 2005 - 2006년 기간 중 EU의 25개 회원국 2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U의 IFRS 적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2007년 10월 19일). 국제회계기준(IFRS) 사용에 대한 조사결과²²⁾, 대다수의 기업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연결당기순이익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³⁾ 국제회계기준(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서 재작성된 회계처리항목

20) 금융감독원(2008)

21)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22) 금융감독원(2008)

23)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연결당기순이익을 많이 증가(8%), 약간 증가(23%),

은 회사당 평균 7개이고, 가장 빈번하게 재작성된 회계처리항목은 이연법인세, 종업원연금, 금융상품 등이다.²⁴⁾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재무보고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국가 간, 경쟁기업 간, 업종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⁵⁾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재무정보와 주가(주가수익률)와의 가치관련성 분석 결과, 자기자본 및 해외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대규모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한 효익을 보다 많이 받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재무제표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Local GAAP을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조정금액(earnings reconciliation adjustment)은 주가 및 주가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박홍조·정태범(2008)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에서의 연구결과로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품질이 증가되는 지를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긍정적인 시장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가치 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만으로 회계품질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법/정치 시스템과 재무보고 인센티브 등의 간접적인 영향 요소들에 대한 제도 전반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어야 회계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박홍조·정태범(2008)은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등의 신속한 개정,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의 강화와 원칙 위주(principle-based)로 운영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의 준비,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 제고 방안의 마련, 연결기준 공시체계 및 감리방안의 보완과 향후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등에 있어 기업, 외부감사인,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 학계의 공조체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회계기준의 국제화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수용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국제감사기준(ISA,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의 전면 수용이다. 선진적 회계기준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감사기준의 선진화 역시 필요하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회계투명성이 달성된다. 국제회계사회는

변화 없음(40%), 약간 감소(16%), 많이 감소(4%)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4) 국제회계기준(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서 재작성된 회계처리항목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연법인세(59%), 종업원연금(50%), 금융상품(49%), 자산손상(49%), 수익인식(48%), 영업권(44%), 연결(44%), 무형자산(43%), 파생상품(42%), 종업원 주식 선택권(38%), 부채/자본(38%), 리스(36%), 유형자산(36%), 외화(32%), 관계기업(20%), 사업결합(19%), 조인트벤처(17%) 등

25) 재무제표 이용자인 투자자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재무제표의 질적 수준을 많이 향상(6%), 약간 향상(57%), 약간 악화(18%), 많이 악화(6%)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감사인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재무제표의 질적 수준을 많이 향상(28%), 약간 향상(52%), 약간 악화(6%), 많이 악화(2%)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6) 금융감독원(2008)

국제회계기준(IFRS) 및 국제감사기준으로의 합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한 EU에서는 국제감사기준 역시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수용과 함께 국제감사기준의 전면 수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문철·안영균·정혜영 2006).

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기대효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 또는 국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다양하다. 김문철·안영균·정혜영(2006)은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수용을 통하여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제적 신인도 개선 및 원활한 자금 조달 효과이다. 기업투명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인은 회계투명성이다. 회계투명성보다 광의의 개념인 경영투명성의 제고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사회적 투명성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효익은 우선 우리나라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되고 국가 간 비교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차입조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기업의 이중적 회계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수용은 해외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절감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 해외에 상장된 기업들이나 해외에서 차입하려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다시 국제회계기준(IFRS)이나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재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보고비용이 국내 영업 위주의 기업들에 비하여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회계기준 제정비용의 절감 효과가 존재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내 이해관계자 집단의 반발과 마찰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국내에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회계기준의 제정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비용을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과정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Holger Daske et al.(2008)은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영국 등 26개국 8,726개 기업²⁷⁾의 34,673개(기업/연) 표본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업/연 패널분석(firm-year panel regression)을 통해 자본시장의 파급 효과를 주식시장의 유동성,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및 Tobin's q²⁸⁾의 변화를 측정, 분석하였다.²⁹⁾

27) 이 중 3,741개 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최초 도입함.

28) Tobin's q(자산의 시장가치/자산의 장부가치)가 증가함은 동일 투자비용으로 얻게 되는 시장가치 증가함을 의미함(금융감독원 2008).

29) Holger Daske et al.(2008), 금융감독원(2008)

Holger Daske et al.(2008)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의무도입 이후 시장 유동성이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 전 기준으로 3%에서 6%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 전·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기업의 기업가치는 2%에서 4% 증가하여 미도입기업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일관되게 기업의 자본비용은 감소하고 Tobin's q는 증가하였다. 즉, 국제회계기준(IFRS) 자발적 도입기업의 시장 유동성 및 기업가치(Tobin's q)가 비자발적 도입기업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최초 도입시점 기준). Holger Daske et al.(2008)은 또한 기업들이 회계투명성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있고, 법률적 규제, 감독이 엄격한 국가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도입기업 모두에게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효익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의무적 도입과 자발적 도입 중에는 자발적 도입 기업들의 경제적 효익이 더 컸고, 각 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전 회계기준(Local 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차이가 큰 국가일수록 의무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증대되었다. 이는 엄격한 감독 및 높은 회계투명도가 겸비되었을 때 파급효과가 극대화되고, 회계투명도 제고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결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인 동시에, 성공적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제임을 암시한다(금융감독원 2008).

Joanne Horton et al.(2008)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용한 기업, 조기도입한 기업, 도입하지 않은 기업³⁰⁾으로 분류하여³¹⁾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이 기업의 정보환경(information environment)을 개선시키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정보환경에 대한 대응치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오차, 애널리스트들 간 예측의 불일치, 예측의 변동성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Joanne Horton et al.(2008)은 2003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127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³²⁾ 애널리스트 예측의 정확성 등 기업의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³³⁾에 대한 Joanne Horton et al.(2008)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류한 표본 집단 모두에서 정보환경의 모든 변수들이 의무적용 전환기간 동안에 개선되었고, 외부성으로 인하여 자발적 조기도입 기업이 의무적용 기업보다 정보환경 개선 효과가 더 큼을 발견하였다. 특히 정보환경의 개선은 비금융업종에서 크게 나타났고, 금융업종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전·후에 정보환경 개선효과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인해 손익의 변동가능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금융감독원 2008).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경험하지 못한 애널리스트들에 비하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경험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속해 있는 산업일수록 학습효과에 의하여 예측성과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한 당기순이익과 Local GAAP에 의한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정보환경 개선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0) 2005년 이후에도 각 국의 Local GAAP 또는 US GAAP을 계속사용하는 기업을 말함.

31) 의무적용한 기업(mandatory adopters), 조기도입한 기업(voluntary adopters), 도입하지 않은 기업(non - IFRS adopters)

32) Joanne Horton et al.(2008), 금융감독원(2008)

33)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오차(실제수치와 예측치와의 차이), 애널리스트들 간 예측차이 및 예측의 변동성 등이 줄어든 경우 정보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금융감독원 2008).

황인태·한봉희·강선민(2009)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채택이 더 낮은 이익조정과 관련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영국과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의 회계기준 적용의 경우와 비교하여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으로 이익조정이 감소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영국은 동일연도 사업기간에 대하여 UK-GAAP을 적용한 경우보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에서는 UK-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하의 재량적 발생액 차이가 없었으나, 대기업은 국제회계기준(IFRS) 전환으로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회귀분석 결과는 산업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엔 영국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영국과는 달리 A-GAAP(Australian-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하의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대·중·소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으로 인한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종별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산업에 따라 그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3. XBRL

가. XBRL 도입 관련 연구

유상열(2008)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에 기재되는 재무제표 공시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상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상장법인은 2007년 10월부터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XBRL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XBRL재무제표와 함께 사업보고서 내에 직접 기재하면, 정보이용자는 XBRL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가 유통될 수 있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유상열·김병모(2008)는 우리나라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XBRL 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이를 자진 공시하였던 기업의 특성을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조사하고, 자본시장에서 XBRL 재무제표 공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XBRL 재무제표 공시여부는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외국인지분율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XBRL 재무제표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장회사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지분율이었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재량적 발생액과 판매관리비율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지분율이 높고 재량적 발생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회계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XBRL 재무제표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공시태도와 회계투명성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유의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상열·김병모(2008)의 연구는 XBRL 재무제표 공시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에서 유의적인 정보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정이·김이배·김철환(2009)은 2007년 6월까지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특성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유동성과 수익성, 그리고 기업의 구조와 관련하여 차입경영비율과 규모와 연관시켜 분석한 결과 유동성과 대형회계법인의 감사 여부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입경영비율을 의미했던 레버리지율에서는 상위 50%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량기업이 아닌 기업이 오히려 더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XBRL 도입의 기대 효과

XBRL을 통하면 모든 문서의 정보에 의미 있는 태그를 삽입하여 정보를 보다 완전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기업 정보의 유통에 관한 관계자인 투자자, 기업가 등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또한 XBRL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회계원칙 등이 변화하거나 추가적인 회계원칙을 세워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없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 있다(나영진, 2003). 또한 XBRL에 의한 재무보고는 표준화된 회계정보의 유통으로 보다 광범위한 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의 정보욕구는 자본시장에서 투명한 경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므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회계정보가 투명하다는 것은 그 정보를 믿을 수 있으며 미래의 전망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유상열·김병모 2008).

구정옥·김강정(2004)은 XBRL의 내용과 재무보고환경에 대한 XBRL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고, 문헌연구에 의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XBRL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무정보 전달과정의 오류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정보의 제공, 검색, 비교, 분석을 편리하게 해 주는 XBRL은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인지처리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제고되면 관심도 증가되어 정보요구가 늘 것이고 기업도 이에 부응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시량에도 영향을 주고 기업의 투명경영의지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도 투명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즉, XBRL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어 회계기준의 개선과 공시확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정옥·김강정(2004)의 연구는 XBRL은 재무정보의 보고방식과 이용방식을 대폭 변화시킴으로써 정보제공자로부터 최종이용자에 이르는 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을 향상시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노미현(2005)은 기업의 재무보고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재무보고 방식으로 이행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재무보고의 주요 논점들을 검토해 보고, 이러한 논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XBRL의 내용을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XBRL은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의 인지처리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XBRL은 인터넷 재무보고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더욱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전망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들도 국제사회에서 외국금융기관 및 해외 투자 기업들이 기업 투명성의 척도로 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요청할 때를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XBRL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XBRL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산업의 표준화 XBRL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과 XBRL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추진조직 구축, 시범사업, 인력양성 등의 산업기반도 시급히 조성하고, 학계에서도 심도있는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XBRL을 이용하여 공시를 하는 기업은 회계정보의 호환성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 정보교환비용이 절감되며, 회계투명성이 향상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최승호(2008)는 XBRL을 이용한 공시와 회계투명성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³⁴⁾ 연구 결과, XBRL을 이용한 자발적 공시와 회계투명성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XBRL을 이용하여 자발적 공시를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회계투명성이 낮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예상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의무공시가 아닌 자발적인 공시 초기 단계이며, XBRL 프로그램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XBRL을 이용하여 공시를 한 기업일수록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에 아직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XBRL을 이용하여 전자공시를 한 기업은 실시하기 이전연도에 비해 이후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을 비교해 볼 때 이후연도에서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였음을 보였지만 유의적이지 않았고, 다른 모형에서는 오히려 이후연도에 재량적 발생액이 더 높게 나왔다. 다시 말해서 XBRL 전자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이익을 낮추려는 기업도 있지만 높히려는 기업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추가분석 및 후행연구가 요구된다. 사실 이와 같이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은 최승호(2008)의 연구만은 아니다.³⁵⁾

34) 회계투명치의 대응치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35) ERP시스템 도입과 이익조정 연구(남천현 2006)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남천현(2006)은 ERP시스템도입과 회계투명성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ERP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 오히려 이익조정을 높게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도입후의 발생액이 도입전의 발생액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ERP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은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익을 낮추려고 하는 기업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IV. 결 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채택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고언어로는 XBRL을 도입해야 한다. 물론 회계투명성은 단순히 회계기준과 보고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최근의 추세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 둘은 결합되어야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우선 회계투명성에 대한 정의, 측정, 개선방안을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도입의 효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투명성의 제고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XBRL 도입 관련, 도입의 효과를 회계투명성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국가 전체적인 회계신인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회계시스템의 국제화, 선진화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국가의 회계투명성은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국가의 회계투명성은 크게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중심의 회계를 지향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새로운 회계환경에 직면하여 인식의 전환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는 아직 확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 스스로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즉, 기업 입장의 좁은 의미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단기적으로는 보장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면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비용은 단기적인 반면, 효익은 중·장기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XBRL의 도입은 표준화를 통하여 호환성을 향상시켜주고, 정보제공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며, 표준화된 정보의 유통으로 회계투명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증연구는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 본격적인 도입이 아니라 XBRL을 자발적으로 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의 도입은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킨다. 이 둘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도입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XBRL의 도입에 정책적 타당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2009년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이 11개에 불과하므로 실증분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점은 2011년에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였을 경우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구정옥 · 김강정. 2004. XBRL과 회계정보투명성, 회계정보연구(제22권 제2호) : 179 - 202.
- 금융감독원. 2008.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 김광윤 · 박해영. 2002.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제18권 제3호) : 237 - 267.
- 김문철 · 안영균 · 정혜영. 2006.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제15권 제3호) : 165 - 194.
- 김정국 · 문점식 · 서정우. 2004.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위한 한국의 능동적 전략, 회계저널(제13권 제3호) : 87 - 117.
- 나영진. 2003. 「XBRL - 의미와 관련 톨 현황」 : 삼성SDS IT REVIEW : 2 - 7
- 남천현. 2003. ERP시스템 도입이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관리회계연구(제6권 제1호) : 71 - 101.
- 노미현. 2005. 인터넷 재무보고와 XBRL에 관한 연구, 인터넷비즈니스연구(제6권 제2호) : 139 - 159.
- 도상호. 2004. XBRL의 도입과 효과, 한국전산회계학회 춘계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55 - 61.
- 문현주. 2007. 윤리경영과 재량발생액과의 관계, 회계저널(제16권 제1호) : 81 - 105.
- 박종성 · 이은철. 2003. 회계제도의 개선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회계학연구(제28권 제2호) : 105 - 134.
- 박홍조 · 정태범. 2008.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 및 정착방안 연구, 대한경영학회지(제21권 제4호) : 1751 - 1785.
- 백원선 · 조중석. 2007. 회계투명성의 측정과 평가 및 투명성 제고방안, 한국회계학회 연구보고서.
- 송인만 · 이창우 · 이갑재. 2007.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 오준환 · 김호중 · 김성남. 2006.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제15권 제2호) : 31 - 58.
- 유상열. 2008.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공시제도에 대한 검토 : 사업보고서와 분기 · 반기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제21권 제4호) : 1787 - 1812.
- 유상열 · 김병모. 2008. XBRL재무제표를 자진 공시한 기업들의 특성과 공시효과, 회계와 감사연구(제48호) : 323 - 349.
- 윤재원 · 최현돌. 2005. 기업지배구조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 1 - 22.
- 이명곤 · 이화득. 2004. 회계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안, 회계저널(제13권 제2호) : 181 - 223.
- 이장형. 2004. 기업의 회계투명성 측정모형에 관한 연구, 2004년 한국전산회계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 259 - 276.
- 이정이 · 김이배 · 김철환. 2009.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의 특성, 세무와회계저널(제10권 제1호) : 249 - 277.
- 최승호. 2008. XBRL을 이용한 재무정보공시가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경영교육논총(제50집) : 281 - 303.
- 한국회계연구원. 2003. 회계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능동적 전략
- 황인태 · 한봉희 · 강선민. 2009.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황호찬. 2008.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에 관한 연구모형의 제안 : 개인적 특성, 상황적 특성, 조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경영연구(제23권 제2호) : 303 - 327.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5.10.5, 2007.2.14, 2007.7.24)

XBRL 한국본부 홈페이지

Daske, H., L. Hail, C. Leuz, and R. Verdy. 2008. Mandatory IFRS reporting around the world : early evidence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 : 1085 - 1142.

Horton, J., G. Serafeim, and I. Serafeim. 2008. Does mandatory IFRS adoption improve the information environment? *Working Paper*.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LSE) -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Finance, Harvard University - Harvard Business School.

Accounting Transparency

- Adoption of IFRS and XBRL -

Kim, Yi Ba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basis on practical background that the full adoption of IFRS and XBRL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Korea's accounting transparency, which results in greater synergy effect.

To this end, focusing on previously conducted studies, this study covers expected effects of the full adoption of IFRS and effects of creation, application, and adoption of XBRL. Based on these effects, it analyzed to see whether accounting transparency is relevant with adoption of IFRS and XBRL, and drew a conclusion from the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is possible to say that a nation's accounting transparency can be enhanced by full adoption of IFRS, which yields an opportunity to eradicate misunderstanding about the nation's overall accounting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In other words, the nation's accounting transparency in wider sense is greatly heightened. For businesses facing a new environment for accounting and IFRS aiming for principle-based accounting,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be convinced that adoption of IFRS will lead to enhancement of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ith a high possibility that inter-company comparability can be lowered. That is to say, enhanc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for businesses in a narrow sense is difficult to be guaranteed within a short period thus can be expected in the long-term period. Adoption of XBRL will improve compatibility through standardization, reduce time and costs for providing information, offers an opportunity to secure more transparency in accounting by circulating standardized information. But this is not adequately backed by empirical studies in Korea, which is assumed so because the subject of analyses were companies that have not yet fully adopted XBRL but publicly disclosed XBRL voluntarily.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that it analyzed concurrently IFRS and XBRL that may affect the enhanc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and ideas and suggestions made in this study will provide validity for the adoption of IFRS and XBRL. The limits for this study is that its results are not supported by analyses on empirical results since so far only 11 companies have adopted IFRS as of 2009. This will be further studied when all of the publicly-held companies in Korea have fully adopted IFRS by 2011.

<Key words> accounting transparency, IFRS, XBRL

*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Social Sciences, Duksung Women's University